

‘재도전’ 전남 스마트팜 벨리사업 유치 ‘적신히’

2차 후보 공모 고홍군 도전...전국 6개 지역 각축 치열 지역 농민단체 “농업계의 4대강 사업” 공모 중지 촉구

정부의 ‘스마트팜 벨리’ 사업 추진에 전남지역 농민단체와 일부 야당이 반대하면서 전남도가 재공모에 나서는 ‘스마트팜 혁신벨리’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8일까지 스마트팜 확산 거점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벨리’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해 1차 공모에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가 선정됐고, 이번 2차 공모에는 전국에서 2곳이 추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정부의 1차 공모에서 해남이 실패한 만큼 이번 2차 공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차 후보 공모지는 고홍군으로 선정됐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고홍군 도덕면 가야리 일원에 국비와 도비, 군비 등 700여억 원을 들여 유리온실과 실종단지, 청년보육단지 등을 갖춘 스마트팜 혁신벨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전남 고홍을 비롯해 경남 밀양, 강원 춘천, 경기 파주, 충북 제천, 충남 부여 등 6개 지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벨리 성공 추진을 위해 25일 산·학·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남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반드시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업무협약에는 전남도와 고홍군,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남해화학, NH무역 등 11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지역 3개 대학은 청년·창업 보육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5개 기업은 기술혁신 분야를 맡고 농산물 해외 수출을 전담하는 NH무역 등과 결합해 생산·교육·연구기능이 집약된 전남만의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남도의 이같은 재도전 노력 속에 지역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사업 유치가 적신히가 켜졌다. 전국농

민화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는 이날 공동으로 “스마트팜 혁신 벨리 사업은 농업·농민 중심 사업이 아니라 토목·건축의 대기업 중심 사업”이라며 “농민들은 1차 공모 때부터 스마트팜 혁신 벨리사업을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라 규정하고 사업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고 공모 중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규모 생산시설 단지의 주요 생산 품목인 파프리카와 피망, 토마토의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 수입 농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면서 “생산시설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 벨리의 주요 사업 내용인 청년농 육성, 실증

교육연구단지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농업의 문제는 생산 기술의 문제가 아닌에도 영동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전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벨리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민 기본소득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이들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면서 “일단 농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2차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귀근 고홍군수, 정병서 전남대학교 총장, 박철우 순천대학교 기획처장, 박민서 목포대학교 총장, 정영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광록 남해화학 대표이사 등이 25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스마트팜 혁신벨리 성공 추진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광산구 첨단지구에 49층 주상복합 신축 논란

롯데자산개발 추진...지역주민들 “상권 붕괴되고 일조권 침해” 반발

롯데자산개발(주)가 광산구 첨단지구에 광주에서 가장 높은 49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이 주상복합건물에 대형 판매시설이 입점할 경우 상권 붕괴와 함께 일조권과 조망권 등 생활권 침해까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광산구에 따르면, 롯데자산개발(주)가 지난해 12월 ‘쌍암동 롯데슈퍼주상복합’ 개발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광산구에 신청했다.

롯데 측은 현 롯데슈퍼 첨단점 부지(쌍암동 654-2번지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49층 연면적 9886만여 m²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2층엔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1

층~3층엔 영화관, 지상 4층부터는 아파트 414세대(전용면적 84m²)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산구는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의 위해 광주시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 주도록 요청한 상태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서구 화정동의 34층 유니버시아드 현대 힐스테이트를 제치고 광주에서 층수와 높이가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 이 때문에 인근 주변 골목 상권 상인들은 대형 판매시설의 입점을 우려하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K모(47·쌍암동)씨는 “대형 아울렛 입점으로 인한 블랙홀 현상과 이에따른 상권붕괴가 우려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모(61·월계동)씨도 “광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만큼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시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사전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지역위원회도 지난 18일 인근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광산구지역위원회는 이후 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심의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심의 과정에 상세히 다뤄질 것”이라며 “주변 여건상 현재의 규모로 승인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윤진보 후보자 인사청문회

광주도시철도공사 윤진보(63) 사장 후보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진행됐다.

반제신 의원(민주·북구1)은 “윤 후보자가 2호선 반대 모임(SNS)단톡방에 있었다. 지인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의견을 피력했느냐”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전부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제를 알아 해결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그 때는 도시철도공사 사장 직원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전남도 재난상황실장, F1 지원단장, 공무원교육원장, 건설방재국장, 서남해안기독교도시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특위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수영대회 개막식 때 세계 각지 물과 백두산 천지 물 합수”

이용섭 시장 “남북교류 계기될 것”

이용섭 광주시장은 25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때 백두산 천지 물을 비롯해 세계 각지의 물을 모으는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남구청을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5일 스위스로 가서 남북체육부장관 회의를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북한 참가단을 공식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공동유원단을 꾸리지는 제안을 담은 서신도 북측에 전달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면 남북 교류는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영대회 개막식 행사로 세계 각지에서 공수해 온 물을 한곳에 모으는 ‘합수’ 행사에 백두산 천지에서 가져온 물도 함께 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담양, 대한민국 대표 생태정원 도시 만들 것”

김영록 지사 ‘군민과의 대화’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담양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담양군청에서 열린 담양군민과의 대화에서 “국립정원센터가 최종적으로 담양으로 유치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양은 문화역사자원과 지역민의 역량이 어우러져 미래성장동력을 갖췄다”면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토대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전남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전 문제의 경우 광주와 협업 문제가 남아 있지만,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한 담양이 최적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담양 SOC 구축을 위해 광주에서 담양을 거쳐 대구로 가는 ‘달빛내

륙철도’가 건설되도록 힘쓰겠다”며 “도청 소재지에서 비교적 멀리 있는 담양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클러스터 유치에 대해서는 “전통 농업만으로는 지역 산업을 일으킬 수 없다”며 “화장품 산업 유치는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이날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미확보 2억원과 군도 1호선 확장·포장공사 3억 원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주민들이 건의한 담양군 월산면 마산교차로 진출입으로 개선사업도 도비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군민과 대화 후 첨단문화복합단지를 방문,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미리 근절 위해 공공기관 통합 채용

시 산하 공사·공단 등 28곳 참여 공기관 혁신정책...올 76명 뽑아

해마다 되풀이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없애기 위해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통합채용한다.

25일 광주시는 “올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 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되는 정책으로 통합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광주시에 통합채용을 위탁한 시 산하 공사·공단, 출연기관, 사단법인 등 28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올해 채용계획이 있는 광주 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6개 기관이 참여한다. 상반기와 하반기 38명씩 총 76명을 채용한다.

광주시는 4월 중 기관별 채용인원과 시험과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5월 초 필기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채용 예정 기관은 일정에 맞춰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시로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받아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외 별도의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필기시험 이후 기관별로 처리되는 면접시험은 직무 중심의 블라인드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면접 객관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6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4월 중 면접위원 인력풀을 구성, 기관별 면접심사 시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면접위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필기시험을 모두 의무화해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력 채용이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달 17일 시장 직속의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안 가운데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3월 중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